

#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오늘 국회서 게임산업 저작권 침해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민주 김윤덕·임오경 의원실 공동주최

최근 게임사 간의 저작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게임산업의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토론회가 열린다.

21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게임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김윤덕 의원실, 임오경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게임저작권 유관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이 공동으로 주관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게임제작물의 정의 마련, 게임 관련 저작권성, 업무상 제작물의 저작자 관련 사례 등 국내 게임의 침해 사례 및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게임물 불법 복제 현황을 살펴보고 불법 복제에 따른 법적 처벌이 불법 복제 행위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게임저작권 관련 전문가 및 유관 부처의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

고 이를 통해 게임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황성기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주제발표는 김찬동 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 유창석 경희대 교수, 강태욱 변호사가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토론자로선 이영민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김경숙 상명대 교수, 송진 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센터장, 이용민 변호사 등 게임산업과 저작권 분야 전문가가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김유기 기자



제13회 순창군민 문화축제가 지난 19일 향토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관내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오카리나 영 아티스트들이 무대 위에 올라 오카리나를 연주하고 있다.

## 서울서 전북 14개 시군 관광 자원·문화 홍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종로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서울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북의 다양한 관광 자원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도, 종로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관광 팝업스토어' 운영... 24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종로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서울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북의 다양한 관광 자원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여행하기 좋은 도시, 전북'이라는 주제로 행사 기간 동안 하이커 그라운드 2층에서 전북 관광 팝업부스를 운영한다.

팝업부스에서는 14개 시군의 특산품과 기념품을 전시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방문객들에게 각 시군의 대표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전통문화 체험의 일환으로 관광객이 직접 한복을 입어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운영한다.

주말에는 특히 많은 관광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3일 오후에는 전주대학교 '사울아비' 태권도 시범 공연이 1층 야외마당에서 펼쳐진다.

사울아비는 관광객에게 역동적이고 화려한 태권도 기술을 선보이며, 태권도 도시의 매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말 이틀 동안 관광객을 대상으로 즉석촬영 이벤트가 진행되며, 다양한 경품 추첨과 전북관광 SNS 구독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이정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전북을 매력적인 여행지로 각인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전북을 방문하고, 그 매력을 직접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 게임물 전문지도사 양성 '맞손'

전북콘진원,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약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일 오후 2시, 진흥원 2층 중회의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전북 지역 게임산업 교육 활성화와 건강한 게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진흥원 김성규 원장과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북지역 게임물 등급분류 교육 활성화와 건강한 게임 이용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게임산업 관련 교육사업 활동 등에 관한 지원, 게임물 전문지도사 운영 및 양성에

필요한 상호 교류 등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진흥원은 △게임물 전문지도사 운영 및 양성에 필요한 상호 협력 △게임산업 관련 교육사업 활동 등에 관한 지원 협력 △각 기관 보유 네트워크 및 인프라 연계 활용 등을 적극 협력하여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전북지역에 제공, 진흥원 인력양성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게임 교육 콘텐츠 공유 및 활용,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과 참여를 통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진흥원은 K-콘텐츠와 디지털 융복합산업 선도하는 진흥기관으로서 콘텐츠와 ICT 산업 육성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도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 지역민 문화 축제의 장... '순창군민 문화축제' 성료

제13회 순창군민 문화축제가 지난 19일 향토회관에서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순창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500여 명의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으로 군민들의 문화적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아울러, 행사에는 최영일 군수를 비롯한 순창교육지원청 남상길 교육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개회식을 시작으로 감사패 수여, 축하인사에 이어 12개 동호회의 열정 넘치는 공연이 이어졌다.

행사는 강전폭포소리와 두드리고 난타의 화려한 오프닝 공연과 함께, 날리리 태평소 공

연, 순창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 사랑나눔댄스팀의 경쾌한 무대, 버들소리 하모니카 공연, 파워로빅 댄스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특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순창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51명으로 구성된 슈퍼스타를 꿈꾸는 오카리나 영 아티스트들의 하모니로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이후도 순창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장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동호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동지 맞아 세시풍속 기반 전통놀이 체험

전통문화전당, '마루달 액운 타팔' 개최... 23~24일 6회차 걸쳐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동지(冬至)를 맞아 세시풍속을 기반으로 한 전통놀이 체험 행사 '마루달 액운 타팔'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한옥마을 내 위치한 우리놀이터 마루달에서 오는 23~24일 주말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전주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액운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오길 바라는 소망을 담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는 동지의 대표 풍습인 팔을 소재로 하

는 '팔 손난로 만들기, 행운 부적 팔 주머니 던지기' 체험과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이와 함께 '우리놀이 장터'를 열어 각 체험 프로그램을 완료할 때마다 획득한 접점을 기념품으로 교환해 갈 수 있는 이벤트도 만나볼 수 있다.

행사는 23일과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두 6회차에 걸쳐 진행되며, 현장 예약제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놀이터 마루달(063-281-1544)에 문의하면 된다.

김도영 원장은 "동지는 예로부터 작은 설로 불리울 만큼 중요한 날로 여겨지며 다양한 세시풍속이 행해졌다"며 "전당이 준비한 동지 맞이 행사를 통해 액운을 막고 다가오는 새해의 희망을 기원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